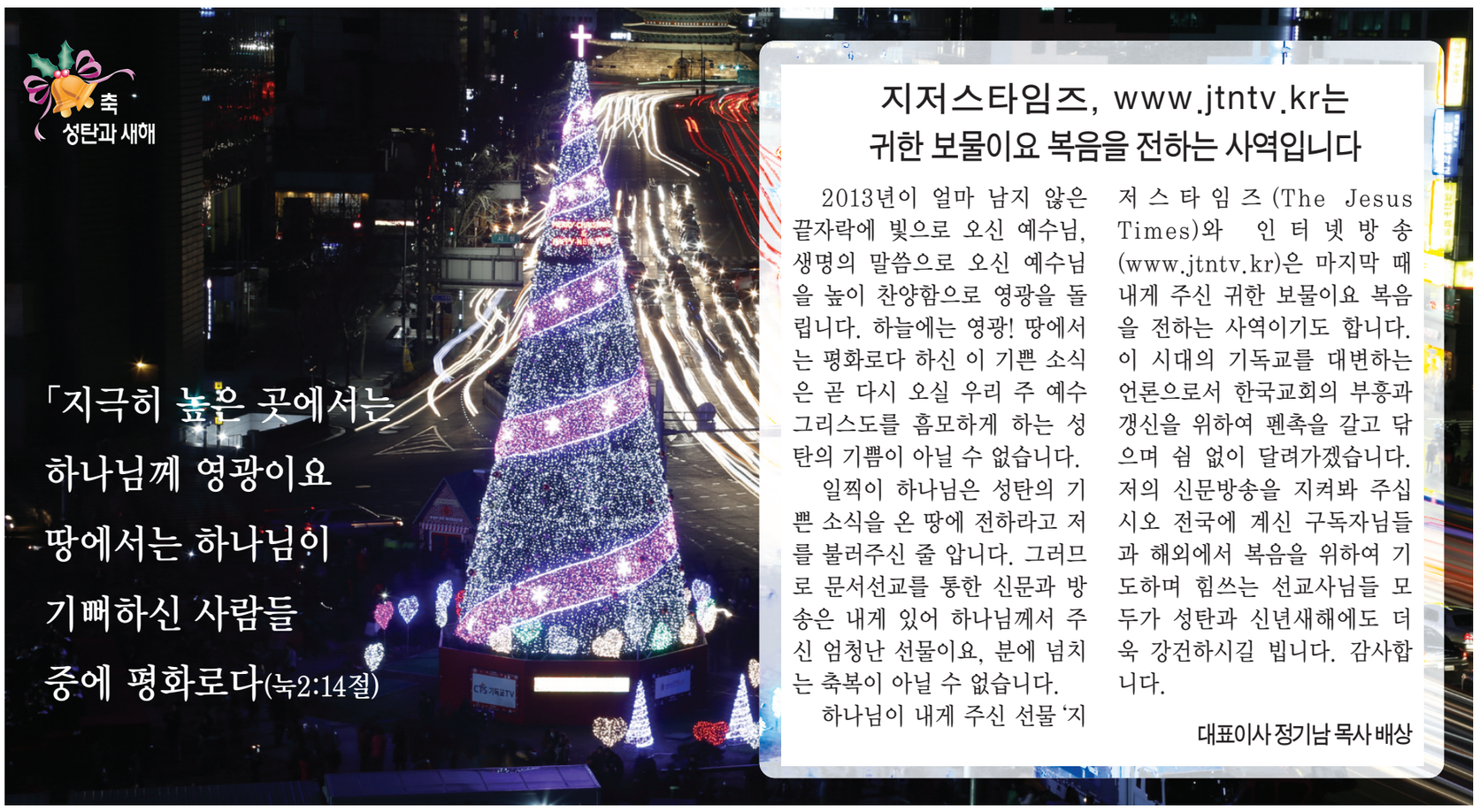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노왈수 박사 이사장 전충현 목사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http://www.sb.ac.kr / E-mail : bs0691@hanmail.net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지저스타임즈

아토피 · 건선 · 난치성피부질환전문
이든한의원
진료시간 오전 9:00~1:00 (점심시간 1:00~2:00) 오전 2:00~7:00 (토 · 공휴일 5시까지, 주말 휴진)
원장 송 창 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7번지 SK엠시티 드라마타크 2층 212호
TEL : 02)2264-8822 · 8833
FAX : 02)2264-8833

이사장 : 정기환 | 사장 : 소진우 | 발행 · 편집인 : 정기남 | 대표전화 : 032-672-3031
www.JTNTV.kr (인터넷 방송)
제74호 2013년 12월 22일 주일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는 귀한 보물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끝자락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신 이 기쁜 소식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하는 성탄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라고 저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문서선교를 통한 신문과 방송은 내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요, 분에 넘치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지저스타임즈(The Jesus Times)와 인터넷방송(www.jtntv.kr)은 마지막 때 내게 주신 귀한 보물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를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펜촉을 갈고 닦으며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저의 신문방송을 지켜봐 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들과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선교사님들 모두가 성탄과 신년새해에도 더욱 강건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배상

길자연 목사, 총신대학 5대 총장에 당선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위해 230억 원을 모금하겠다 약속

총신대학교는 17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재적 155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운영이사회를 열어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원로)를 제5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운영이사회는 길자연 목사와 박수준 교수 등 2명의 총장 후보를 놓고 3차 투표까지 실시해 3분의 2 득표에 성공한 길자연 목사를 5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길 목사는 17일 운영이사회에서 3차 투표 끝에 총 133표 중 90표를 얻어 총장에 당선됐다. 총장이 되려면 참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얻지 못할 경우 재투표를 하게 되고, 만약 선거가 4차 투표까지 가면 참석 이사 2분의1 이상의 지지만 얻어도 당선될 수 있다. 길 목사는 1차 투표에서는 총 143표 중 84표, 2차 투표에서는 137표 중 86표를 얻었다.

하지만 예장합동은 지난 98회 총회에서 만70세를 맞아 정년 은퇴한 이는 총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이사 등을 비롯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결의했다. 운영이사들 중 일부는 총신대가 예장합동 총회 직영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임 길자연 총장은 지난 5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에서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위해 230억 원을 모금하겠다는 계획과 현재 총신의 신학교육이 목회자와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과과정부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신대 학생 60여명은 이사회가 열린 종합관 건물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총장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였는가 하면"총장의 자격기준을 세밀하게 명문화하고 검증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총장 재추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9백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4년 임기를 시작하는 길자연 총장은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총신대학교 총장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원로)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칼빈대 총장을 역임한바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직을 3회 역임한 바 있는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 관련한 모든 공직을 사임한다고 전격선언했다. 길 목사는"작금에 이르러 석연치 않은 한기총의 행보에 심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이지 이단의 해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한기총 내에 이단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이지 이단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길 목사는"한기총 소속 교단의 동의가 없이 한기총 단독으로 이단성이 없다 하여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입지를 뒤흔드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따라서 본인은 그 동안의 한기총이 해제한 유OO 씨의 이단 해제나 박OO 씨의 이단 해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제를 원할 시 한국교회와 각 교단의 합의 하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본인은 금일자로 2014년도 WEA준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한기총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는 바이며, 향후 본인이 소속된 교단의 입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聖誕節과 敎會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물의가 많았다.

작은 교회에서보다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얼굴을 붉힐 일들로 한해를 보낸 것 같다. 물론 교회란 교회 건물 자체가 아닌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들의 행적이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려는 듯하였다. 다원주의 동성결혼의 합리화 초혼제 진실치 못한 목회자의 장담에 따른 여파와 고액 횡령 등, 소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전하는 이들의 몇 명 때문에 전 기독교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자아낼 때에 열심히 오직 주님만을 전하려고 노력해 온 동역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여파가 되었는지 아는가? 물론 작든 크든 사람이기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신앙심은 그만두고라도 인간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회개가 아닌 참회의 고백이라도 있으련만 그리도 뻔뻔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래도 아니 저래야 큰 교회를 이끌 수 있었나? 생각해 본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수선 할수록 교회의 역할을 더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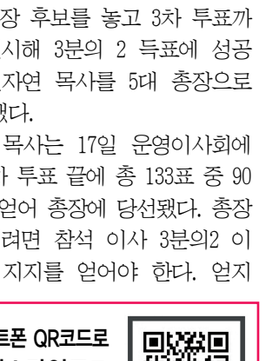
'에밀 부르너'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오해'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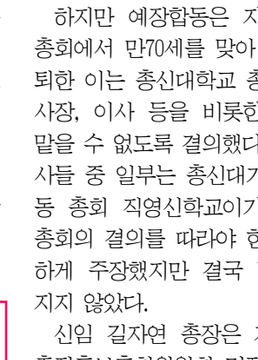
⑴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고 했다. 무엇인가 학교보다 더 나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⑵교회를 친교하는 곳이라고 오해한다고 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⑶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⑷교회를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고 세상을 개혁하는데 앞장서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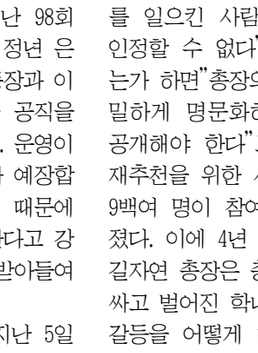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의 핵심이다. 얼마 전 교황은 정치지도자들과 가톨릭 사제들이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와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옛 성인들의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하고, 가톨릭 사제들에게도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주문했다.

지난 9월 미사 강론에서는 "정치인들이 더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사제들도 능력 닿는 대로 최대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 나가지 못하니 마치 천주교 사제들은 모든 것에 통달한 자들인 것처럼 정치인들의 고문이라도 되고 싶은 가보다. 오죽하면 그러랴?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런 때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도 성탄절은 다가온다 우리 주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2013년의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기독교여 일어서라 주님이 오신다.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총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석칠 박사 천복교회


경남신학원 정호석 목사 진주사랑의교회

즐겁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며, 2014년 새해에도 총회와 노회,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가정의 평화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이규필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총회 신년하례 및 시무식 : 2014년 1월 7일(화)오전 11시
장소 : 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동천교회)




부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회의록부서기 허봉도 목사 서광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 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석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 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동천교회) ☎(02)496-0191, 496-0181(FAX)

한교연 제3대 대표회장 후보 정책발표회 가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제3대 대표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에서 권태진 목사가 1번, 한영훈 목사가 2번을 뽑았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에는 한영훈 목사(예장 한영 총회장)를 대리해 한영 총회총무 김명찬 목사가, 권태진 목사(예장 합신 증경총회장)를 대리해 예장합신총회 총무 김 혁 목사가 대리인으로 각각 참석해 김명찬 목사가 먼저 기호를 추첨한 결과 2번을 뽑았으며, 이어 박 혁 목사가 1번을 뽑았다.

기호추첨에 앞서 제3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요셉 목사)는 지난 13일까지 등록을 완료한 한영훈 목사와 권태진 목사를 대상으로 대표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결과 후보 자격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입후보자가 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19일(목)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대표회장 입후보자 공청회 및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권태진 목사


한영훈 목사

오메가복음 학술세미나 및 요한계시록대학원대학 한요한 총장 추대 예배 미국 예수아대학과 학위 협정 맺어



요한계시록대학원대 한요한 총장 추대

미국 예슈아대학교 학위 협정에 의한 요한계시록대학원대학 한요한 총장 추대 감사 예배 및 오메가복음 학술세미나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오메가복음학술원에서 드려졌다.

김영신 목사(광명일직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박용언 목사의 섹스폰 연주에 이어, 북방선교회장 현경성 목사가 기도를, 한요한 총장(YTS Th.D)은 설교와 특강을 통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천상교회는 원본이며 지상교회는 사본이고, 우리 지상교회가 천상교회를 닮아야 하며, 요한계시록 빠진 복음은 반쪽 복음이며, 세마포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린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신인동거(神人同居) 신부단장(新婦丹粧)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강정숙 목사(열린문교회)의 헌금기도, 예슈아대학교 박영규 명예총장이 예슈아대학교를 소개하고 총장 추대패를 수여했고, 배진구 목사(신안산성결교회)의 격려사, 김병수 목사(부천한빛교회)의 권면, 유연동 목사(서울광성교회, 예장합동부흥사회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추대 예배가 성황리에 드려졌다.

한요한 목사는 개신교부흥협의회 공동회장, 예슈아대학 대학원 Th.D(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연구), 평양신학 대학원 교수, 오메가복음학술원장, 목회 50년,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고 있으며, 1980년 신부단장(감수방지일 목사외 4인), 2007년 요한계시록 교훈 등 10여권을 저술하였으며, "알파와 오메가 복음(계1:8)은 구원론, 종말론, 재림론, 천국론 온전한 복음으로 21세기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주창하고 있다.

사회부 이남숙 기자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 피종진 목사 이사장 : 정기환 목사 사장 : 소진우 목사 발행인 :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74-10 대운빌라 2층 제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32) 672-3031(팩스겸용)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국민이 일어나 국가전복 운동 막아야!

노조 단체들이 총 집결하고 중-고-대학의 학생들까지 가세할 태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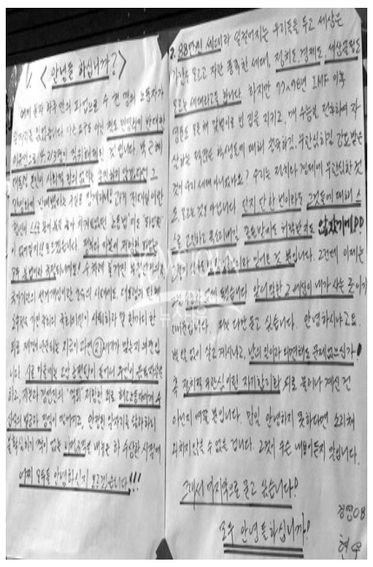
극렬 노조시위에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12월 19일에는 노조 단체들이 총 집결하고 중-고-대학의 학생들까지 가세할 태세다. 정치학생 주현우가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12월 10일을 기해 첫 봉화를 올렸다. 철도노조의 민주화운동에 관심들을 가져 달라는 호소였다.

이 첫 봉화를 신호로 하여 이에 동조하고 호응하는 대자보들이 대학가는 물론 고교에까지 확산되고 정치권과 언론계 예술계에 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 마치 제주 4.3사태를 다시 보는 것 같다.

주현우가 올린 첫 봉화의 의미

고려대 주현우는 경영학과 4학년이지만 노동당 학생당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고,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하여 각종 정치집회에 참여하고 희망버스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한다. 이런 정체를 지닌 주현우가 올린 첫 봉화는 단연히 정치공작의 봉화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찮은 대자보에 전국에 분포된 학생들이 호응하는 것도 조직적인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노동당 부대표 박은지는 지난 11월 8일, 커뮤니티 사이트 썰타임에서 "주체사상은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힘을 긍정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김일성주의자 대부분은 대단히 훌륭한 풍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믿음, 고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다."라는 글을 실었다고 한다. 노동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이런 빨갱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주현우가 철도파업에 동조하면서 "학생들이여, 응답하라"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쓴 것은 파업동참을 선동한 행위일 것이다.







주현우의 대자보가 민주화운동 기념사료로 지정된다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등 좌파매체들은 주현우를 민주화 열사라며 영웅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아래는 경향신문 기사다.

"고려대가 '안녕들 하십니까' 첫번째 대자보를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로 보존하기로 했다. 16일 고려대 박물관 기록자료실은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씨(27)가 지난 10일 교내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민주화운동 기념 사료로 보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려대 주현우씨(27)는 10일 오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자보를 손으로 써 교내에 붙였다. 9일 밤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4213명이 직위해제 되고, 밀양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는"하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제공)

경북대에 나붙은 반듯한 대자보

이런 선동적인 호응들은 학원가에 조직적으로 나붙고, SNS 공간을 통해 마치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에는 경영학부 09학번 박모씨라고만 밝힌 한 학생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시작하는 대자보를 15일 경북대 교내에 붙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철도노조파업을 반대하고,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면 깨어있지 못한 대학생 취급을 받는다. 나도 사회문제에 충분히 관심 많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못한데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까? 종북세력에게 종북세력이라 말하면 일베충으로 몰리고 북한과 김정은을 비판하면 국정원 알바라고 한다.

국정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댓글을 단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전공노와 전교조도 (대선 당시) 문재인을 지지하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느냐? 국정원이 없어지면 누가 가장 좋아 하겠느냐. 우리의 주적 북한이다. 일부 사람들이 유신 시절로 돌아갔다, 혹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이 대공분실로 끌려가지 않은 채 폭정이라고 떠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법으로 규정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정부가 A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절대 A가 아니고 B야' 라고 꼬리물기 식으로 우기고 있다. (철도노조의) 민영화(저지 구호)는 명목일 뿐 뒤에서는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고 있다. 당신들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라고 항상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것이다. 저는 이런 현실에 안녕치 못 합니다"

이렇게 반듯한 글을 쓴 학생이 바로 속이 찬 학생의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은 빨갱이들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일베에 들어가"주현우"라는 검색어를 쳤더니 '삭제된 글'로 나온다. 일베는 지금 경북대 학생과 같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주현우 성향의 사람들만 소통하는 장소가 아닌지, 여러 달부터 의심해 왔다.

12월 19일은 단순한 노동시위가 아니라, 노동자와 학생 시위가 주축이 된 1946년의 총파업과 대구폭동 전통을 계승하고, 1980년대의 '민주화 쓰나미'를 꿈꾸는 반국가적 정치투쟁이 될 모양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체가 있어서 시체장사로 국민을 선동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체가 없는데다 오히려 장성택 사건에 대한 염북정서가 팽배해 19일의 시위는 국민들로부터 냉소를 받게 될 것이다.

1946년의 대구폭동에서는 시체를 병원 시체실에서 꺼내다 경찰과 미군정이 죽인 시체라고 선동했다. 국민은 시체장사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번에 반드시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웨신총회 강도사 고시 공고

1. 고시일자 : 2014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2. 고시장소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3. 고시과목
   (1) 필기고사 : 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2) 논문 : ① "민족복음화"에 대하여 논하라
   ②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에 관하여 논하라. 중 택일 (A4용지 7매)
   (3)설교실기 : 설교문 전문 제출 (설교 실기시 약 5분정도의 분량)
   본문 : "마16 : 24 - 28"
   (4)면접 (헌법포함)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웨신총회 인준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는 필기고사(조직신학, 교회사, 헌법) 면제함.

4. 고시료 : 300,000원
   고시료 입금계좌 / (우체국) 013821-01-002737 예금주 :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5. 접수기간 : 주후2013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월 20일 오후 5시까지
   논문 및 설교문은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고시료도 납입해야 합니다.

6. 고시청원서 제출처 : 총회본부(사무실), 웨민선교회(박우재 교수)
   주소 / 150-85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 02-835-2606~7 FAX 02 - 835 - 8211- 2608
   강도사 고시 청원서는 총회 사무처, 웨민선교회, 또는 교무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자격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웨신총회 인준 신학교 졸업자, 본 총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또는 연구원 졸업자, 또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 상세한 내용은 총회 사무처와 총무 또는 웨민선교회 박우재 교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835 -2607 총무 : 신언창 목사 010 -8602 - 3009



경서교회 홍재철 목사 원로목사 추대예배

예장합동 함남노회에 속한 경서교회는 창립 31주년을 맞아 12월 7일(토) 오후 2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소재에서 당회장 홍재철 목사는 성역 32주년을 기념하여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가 예루살렘 대성전에서 드려졌다.

원로목사 홍재철 목사는 서울 강서구 화곡5동에서 홍 목사 외 5명이 경서교회를 창립하여 1987년 8월9일 경기도 부천시 고강본동 소재 대지 200평을 매입하여 가건물 100평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오늘의 대성전을 이루기까지 홍재철 목사는 경서교회 성역 3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이날 한기총 총무 최명우 목사(강남순복음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한기총 공동회장 하태초 장로(평협 증경회장)가 기도를, 한기총 서기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는 성경봉독(사사시 16:23~30절)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으며,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한기총 직전대표회장)는 "한물 간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길자연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은퇴하는 홍재철 목사,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홍재철 목사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홍재철 목사는 경서교회를 개척하고 이처럼 경서교회가 대교회로 부흥하기까지 인생의 힘이 다하기까지 30년의 세월을 걸어왔다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홍재철 목사는 원로목사로 은퇴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삼손이 살았을 때의 삼손의 힘보다 죽었을 때의 삼손의 힘이 더 크듯이 홍재철 원로목사는 한물 간 인생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감당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예배는 서울기독대총장 이강평 목사(한기총 공동회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성 증경총회장 윤종관 목사(한기총 공동회장)의 기도, 함남노회 증경노회장 이호현 목사가 홍재철 목사의 약력소개와 중앙총회 신학대학원장 이건호 박사(한기총 이대위원장)의 추대사가 있은 후 교우들에게 서약과 함남노회장 김길수 목사의 공포가 있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의 내빈축사에 이어 이광선 목사, 엄신형 목사, 이영훈 목사, 이승렬 목사, 김용도 목사, 강영선 목사가 축사를, 이만신 목사, 오관석 목사, 지 덕 목사, 이용규 목사가 격려사를, 김성광 목사의 회고사를, 윤향기 목사의 특송이 있은 후 함남노회 복리회 상임회장 강태구 목사가 노회축하근을 홍재철 원로목사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경서교회 배인관 수석장로, 경서교회 총연합회장 이형숙 권사가 홍 원로목사에게 교회축하금을 전달했다.



또한 부천기독교총연합회장 조주환 목사는 홍재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경서교회 각 여선교회의 꽃다발 증정과 경서교회 장로 부인회의 특송이 있었다.

원로목사 홍재철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답사로 감사의 인사를 한 후 홍성익 담임목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장로회장 조재현 장로의 광고와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조경대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원로목사로 추대된 홍재철 목사, 손창순 사모는 슬하에 장녀 홍수영 사모, 사위 강갑중 목사(손자녀 강애린, 강에스더, 강호건), 장남 홍태성 안수집사, 며느리 박리라 집사(손자녀 홍성겸, 홍성령), 차남 홍성익 목사, 며느리 김정아 사모(손자녀 홍례령, 홍라헬) 등이 있다.

한편 홍재철 원로목사는 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18대 대표회장이며, 저서로는 항애하는 인생 / 백학출판사, 수쿠크, 그 이면에 감춰진 비밀/ 백학출판사,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 / 백학출판사, 축복의 당으로/ 청운출판사, WCC 무엇이 문제인가? / 총회출판국,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 마지막 경주자 / 백학출판사 등이다.

CTS기독교TV, 앱 제작 세미나 매주 무료 운영

교회와 기독교단체 앱 제작 관리에 큰 도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회의 설교나 행사사진 및 알림 등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CTS 기독교TV(감경철 회장, 이하 CTS)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앱을 제작하고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앱 제작 세미나를 매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 CTS에서 실시한 앱 제작 세미나에는 22개 교회가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의 교회 앱 활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CTS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교회 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구성, 디자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 앱 담당자는 "익숙하지 않던 용어와 기능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고 교회로 돌아가서 앱을 가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교회 앱을 직접 운영하는 한 목사님은 "중·장년층에게 친숙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관리에 대해 강의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CTS가 제공하는 교회 앱은 설교나 찬양 등의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라이브방송을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TV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볼 수 있다. 이미 5,000여개 교회와 단체가 앱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CTS 교회 앱 무료제작은 ctsapp@cts.tv 또는02-6333-1179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탁기 목사, 그교협 유지재단 이사장 연임

임기 4년 동안 그리스도의교회 발전과 법적 보호에 최선을
(사) 한국그리스도교회 유지재단 이사장 김탁기 목사(수원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연임



재단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는 연지동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환원회관 유지재단 사무실에서 지난 19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장 김탁기 목사를 재 선출했다.

이날 오광은 이사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공채일 이사의 기도가 있은 후 이사장 김탁기 목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최병준 이사의 축도로 1부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회무처리에 들어간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의 건, 법인 인감변경, 성문교회 재단 가입 승인의 건과 유지재단 보고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고, 이사장 선출에서 김탁기 목사가 투표를 통해 재 선출되었다. 이에 신임 이사장 김탁기 목사는 오는 2017년 12월까지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이사장 김탁기 목사는"그리스도의교회 유지재단은 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의 교회 및 기관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유지재단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을 전개하고, 한국그리스도의교회 발전과 교회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한국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그리스도의교회 총회 등 가입된 교단과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의 중점을 둘뿐 아니라, 그리스도의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온 힘을 결집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게다가"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들이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유지재단이 방패막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교회의 권익보호를 위해 선봉에 서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앞으로 그리스도의교회 위상 제고를 위해 중점을 두고, 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서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선출된 이사장 김탁기 목사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현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도자협의회 상임총무와 수원그리스도의교회 담임 등 겸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눅 1:28)


총회장 김정열 목사
벧엘교회


부총회장 김종환 목사
평안교회


서 기 조재호 목사
우리교회


부서기 정석진 목사
세계로교회


회의록서기 임순종 목사
큰성산교회


회의록부서기 김용택 목사
하늘소리교회


회 계 홍시나 목사
주찬양교회


부회계 김성덕 목사
생수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JCAL COLLEGE & SEMINARY

신 · 편입생 모집

●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

과정	학과/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신학과 (주/야간)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학력이나 성별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 위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반드시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반대학생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됨
신대원	신학과 (주/야간) 4학기	•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졸업 또는 이수한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 됨
통신신학		• 신학부 및 신대원 수료자 강도사 수위 후 목사안수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 함
• 학력, 경력, 성별에 상관없음 • 계절학기를 활용함
• 여목제도가 잘 활용화 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 함
• 본 과정은 서울 본교와 각 지방 캠퍼스가 모두 동일 함

신년하례예배 안내
· 일시 : 2014년 1월 6일 오전 12시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 전화 : 041- 534 - 8765
010- 4731-0391
성남개혁총회신학 학장 김정열 박사

서울개혁총회신학
• 총장 : 윤관 박사
• 학장 : 김종환 목사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483-1 (4층) 사랑의교회 內
• 전화 : 010-3758-8905

천안개혁총회신학
• 학장 : 김정열 박사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87-17 행복을주는교회 內
• 전화 : 041-534-8765 010-4731-0391

대전개혁총회신학
• 학장 : 임순종 박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3-43 번지 2층 큰산성교회 內
• 전화 : 042-320-9193 010-6413-3456

부산개혁총회신학
• 학장 : 이온우 목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947-14
• 전화 : 010-5511-4848

성남개혁총회신학
• 학장 : 김정열 박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 전화 : 041-534-8765, 010-4731-0391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연락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3-3
총회장 : 김정열 목사(010-4731-0391) 서기 : 조재호 목사(010-6266-1331)

사도영성신학원 가을학기 종강예배 드려





사도영성신학원(학장 홍항표 목사) 2013년 가을학기 종강예배가 지난 달 28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에스티엑스 더불유-타워에서 학생회장 김동현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선교회장 신년규 장로의 기도와 이수학 집사의 성경봉독(요 15:13~15절), 사도영성선교회원, 학생회일동은 특송과 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학장 홍항표 목사는"누구에게나 필요한 친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다. 홍 학장은 본원에 대해 잘 될까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본원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후에는 창대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시작도 이루어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또한 홍 학장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하고, 주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의 첫 것이요,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만일 지금껏 주님과 같이 살지 못했다면 기도하고, 성경을 보라, 또한 계속해서 사도영성신학을 연구하면서, 이에 따라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이 생명을 줌으로 승리한다고 전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가 축사 및 권면을 하고, 회장 신년규 장로의 감사인사와 김동현 학생회장(선교회 총무)의 광고가 있었으며, 학장 홍항표 목사 축도로 가을학기 종강예배를 마쳤다.

KBS1TV 25일 밤10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사랑의 밀알 손양원 – 성탄특집방송



KBS1TV가 2013 성탄특집 다큐멘터리로 20세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삶을 방송한다. 12월 25일 밤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방송되는 손양원 목사 다큐멘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사랑의 밀알 손양원- 이라는 타이틀로 방송된다.

방송에서는 손양원 목사가 음성 한센병환자촌인 여수 애양원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인 음성나환자들의 상처에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까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내용이 다뤄진다.

또한 1948년 여순반란사건 당시 자신의 두 아들 동신, 동인을 죽인 학생을 위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마침내는 양 아들로 삼았던 감동적인 내용, 일제 신사참배 반대 투쟁으로 옥고를 치르고, 한국 전쟁 중에 신앙인으로 마흔 여덟의 젊은 나이에 순명하여 순교자의 길을 갔던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다룬다.

이를 통해 손 목사의 삶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고, 스스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살았음을 보여준다.

KBS1 TV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한국 교회사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인간 손양원은 그가 한센병 환자들에게 보여준 이웃사랑과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고문을 이겨내며 실천한 나라사랑,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 청년까지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일찍이 한국 근현대사 인물 가운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기획배경을 밝혔다.

제작팀은 또"이 프로그램은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성탄절을 맞아 온 생애를 '사랑'으로 밀어간 순교자 손양원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면서 그가 마흔 여덟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기까지 극한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인간적인 고뇌와 성찰의 흔적들을 우리 시대를 구원할 참 사랑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통당하기를 꺼리는 자,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탐욕적으로 원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만나는 중에 혹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중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본다....가난을 사랑하는 아내로 삼고, 고통을 선생으로 삼고, 자연을 침구로 삼은 생활이 진정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아니더냐...내 몫에 메인 십자가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기쁘게 지고 나아가리라. 너는 십자가 지기를 꺼리지 마라....-1943년 1월4일 손양원의 신앙고백 중-

2013성탄절에는 MBC, SBS는 성탄특집을 방송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KBS1 TV '죽음보다 강한 사랑' -사랑의 밀알 손양원-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대한다.

찬양신학교 제1회

전국청소년성가경연대회 열어

청소년들의 찬양수준 뛰어나

상금 올려 인재 발굴에 힘쓸 터



제1회 전국청소년성가경연대회가 지난달 23일 오후 6시~8시30분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영광교회(당회장 조강수 목사) 본당에서"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절)로 주제를 정하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실력발휘를 다하라는 뜻에서『마음껏 외쳐라』는 표어아래 이사장 조강수 목사의 기도로 막이 올랐다.

제1회 전국청소년성가경연대회는 찬양신학교(학장 장창윤 목사) 주최와 인천영광교회(이사장 조강수 목사)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진지한 자세와 수준 높은 성가경연대회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 1회 청소년 성가경연대회는 이민규 형제, 최은혜 자매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우현(전 MBC 지휘자), 장창윤 목사(웨신,찬양신학교 학장), 심재헌 장로, 권혜영(사모) 등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일 예선에서 많은 경쟁자들을 실력으로 이기고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14 팀의 이름과 곡명을 확인한 후 음정, 음악과 보컬의 벨런스, 박자, 가창, 감정 및 영성을 중점으로 합점과 총점으로 동상, 은상, 금상, 대상이 가려진다.

이날 참가자들의 뛰어난 실력과 열창으로 5명의 동점자가 나와 제 대결을 갖는 등 대상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4명의 대상자가 가려지고 1번 최민정 자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불러 동상과 상금 10만원을, 10번 찬양요정 팀이 '주님의 십자가를 아나요'를 불러 은상과 상금 20만원을, 13번 박수경 자매가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를 불러 금상과 30만원을, 10번 김혜은 자매가 '십자가 그 사랑'을 불러 제 1회 청소년 성가경연대회 대상을 안았으며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학장 장창윤 목사는 상상외로 많은 참가자들로 예선부터 본선에 진출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힘들었지만 본선에서도 4명의 대상자를 결정짓는데 힘들만큼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의 찬양수준이 뛰어났다며 큰 성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장 목사는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해 주었고, 찬양자체가 은혜였으며, 특별히 이사장 조강수 목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큰일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회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배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2회 때부터는 상금도 더 올려서 성가대회를 갖는다고 했다.

한편 영광교회 당회장이며 찬양신학교 이사장 조강수 목사는 제 1회 청소년성가경연대회에 참가한 모든 성도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격려하고 높이 치하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심사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축도한 후 박수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축 성탄 근하신년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특별세미나



강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고문)

• 강의내용
(1) 하나님의 구속사로 본 일곱 절기(레23)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 여종 특별할인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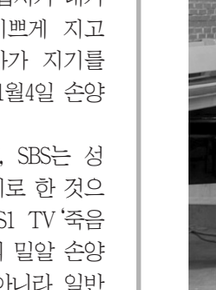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제명공고

총회인준 웨스트민스터 총회신학교(학장 장창윤 목사)와 경천노회장 장창윤 목사를 2013년 12월 5일부로 총회에서 영구 제명함.

2013년 12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암교회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담임 신언창 목사 (웨신총회 총무)

★삶의 지침
1.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
2. 가까이 다가가서 섬겨라.
3. 진실함으로 소통하라.

전북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16-2
063)564-4001, 010-8602-3009

이순희 목사 전도집회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강사 이순희 목사
사)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부흥사
오산리기도원
양평 한얼산 기도원 강사

† 할 수 있다 전도 1000명
† 하면 된다 전도 1000명
† 해 보 자 전도 1000명

1000명 전도 왕 세우기 전도집회
찬양과 찬양율동 영성집회
신유, 예언, 능력, 기적 집회
성전건축과 재정, 전도 부흥집회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는 몰려 옵니다.



집회 문의 010-7730-0191 온세상교회 담임 이순희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1동 1058전지 구로 우성 A상가 202호
☎02)869-0166 Fax 02)869-0167
이사장 011-287-0317

대한예수교장로회 빛 교 회
■표어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담 임 이영풍 목사(웨신,부총회장)
부교역자 박용선 시무장로 이경환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9
교회 : 02)443-5153, 목사관 : 02)417-2848
HP 010-6861-3927

남현교회 불우이웃 120가정에 김장나눔 가져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남현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와 성도들은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세밑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환으로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46 본당에서 지난 달 27일~28일 2일간 정성을 다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나누기 행사로 무우, 배추 1300포기를 절구고 씻어 김장을 담아 불우이웃 130여 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남현교회와 이춘복 목사는 매년 설과 추석명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맞아 불우이웃을 초청하여 춤과 노래, 사물놀이, 연극 등으로 위로잔치를 베풀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돌보는 일에 힘쓰고 있어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교회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남현교회는 설립 32주년을 기념하는 가을음악회에 이웃을 초청하고 음악회가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자전거를 비롯해 푸짐한 상품과 선물을 받아들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돌아갔다. 한편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직원들, 경찰서 기관장 등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남현교회 설립 32주년을 축하했다.

오산반석교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세밑 4일간 자원봉사에 나선 성도들과 이웃사랑 김장 나눔!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김농주 목사)가 주최하고 (사)함께하는 사랑밭, 국민은행의 협력으로 지난 달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정 등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져 세밑 이웃들에게 훈훈한 사랑바이러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오산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산시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되었다. 특히 오산반석교회는 수년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소년소녀, 탈북자녀 돌봄 시설인 광야어린이선교회를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이 돌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다.

사단법인 함께 하는 사랑밭 오산반석지회장인 김농주 목사가 시무하는 오산반석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성도들이 며칠 동안 자원봉사자로 자원하여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하는 사랑 밭에서 50%의 지원을, 그리고 국민은행(오산원동지점)에서 상당량의 쌀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오산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되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서 일부는 오산시에 기증하고 오산시 곽상욱 시장은 직접 방문하여 격려를 해주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오산반석교회 김농주 목사는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포부를 밝히면서 오산에 많은 분들과 함께 더욱 더 행복하고 밝은 오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말했다.

"60대 신사, 자선냄비에 6천 8백만 원 무기명 채권기부"



버버리 코트를 걸친 60대 명동 예술극장 앞 자선냄비에 봉투 넣어 용기 있는 기부문화에 올 겨울이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따뜻하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지난 12일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진행하는 자선냄비에 6천 8백만 원 무기명 채권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 무기명 채권은 2004년 2월 27일 발행되어 2009년 8월 27일이 상환일로 되어 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무기명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13일 오전 시중 은행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진품임이 밝혀졌다.

12일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자선냄비봉사활동을 하던 유영숙 사관학생에 의하면 오후 2시~2시 30분 사이 눈이 가장 많이 내릴 때 60세 가량의 버버리 코트를 입은 깔끔한 이미지의 신사가 자선냄비에 봉투를 넣은 후 명동성당 방향으로 올라갔다고 전했다.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지며 현재, 환갑을 맞이해 자신의 폐물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연들과 함께 모금이 진행되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사)한기협 제 18회 정기총회, 양정섭 목사 유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하-한기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1996년 1월 23일 당시 문화체육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13년 11월 25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번지 여전도회관 2층 루이시기념관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종관 목사(예장합동예합총회 총회장)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양인천 목사(예장영성총회 증경총회장)의 기도와 박길순 목사(예장중앙개혁총회 총회장)는 히 1: 1-2절을 봉독하고, 김권현 목사(예장합동부흥총회 총회장)는"선지자의 사명"이란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이어 특별기도 순서로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최옥석 목사(예장기도총회 증경총회장), 2. 사단법인 한기협 발전을 위하여 김정환 목사(예장합동영성총회 총회장)가 기도 한 후 박형렬 목사(예장개혁교회총회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무처리는 의장 양정섭 목사(이사장)의 사회로 총무 정헌 목사(예장합동예합총회)가 기도를, 강희준 목사(예장개혁총회 총회장)의 회원 점명으로 의장 양정섭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절차보고와 전 회의록을 채택하고, 이사장 업무보고와 강희준 목사(예장개혁총회 총회장)가 사업보고를, 감사 김영의 목사의 감사보고와 서경숙 목사(예장합동부흥총회 부총회장)가 재무보고 순으로 결의되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 현 임원이 그대로 유임되었으며, 이사 양성국 목사, 정우인 목사를 신임이사로 결의하고, 감사는 김영의 목사, 조복동 목사를 유임시킨 가운데 신 안건 토의에 들어가 2014년도 사업안과 세입,세출안 등을 만장일치 통과되고, 그 외 모든 안건과 세미나 등은 이사회에 위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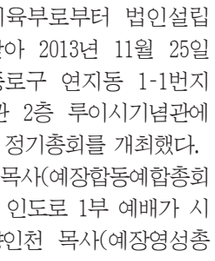
아울러 신년하례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단법인세계개혁교회연합회 총재 김권현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등 3개 단체의 연합으로 개최하고, 3.1절 행사는 사단법인세계개혁교회연합회 주관으로 3개 단체가 연합으로 하고, 6.25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주관으로,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양정섭 목사가 주관하고, 3개 단체가 연합하여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 18회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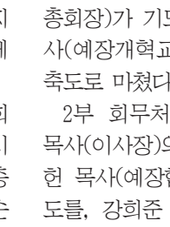
제 18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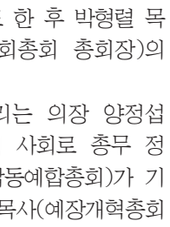
이사장 : 양정섭 목사, 이사 : 김권현 목사, 노종관 목사, 정서영 목사, 박형렬목사, 강희준 목사, 최옥석 목사, 임정태 목사, 양성은 목사, 김인호 목사, 이영춘 목사, 이대용 목사, 서경숙 목사, 양성국 목사, 정우인 목사. 감사 : 조복동 목사, 김영의 목사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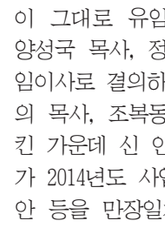
祝 聖誕 謹賀新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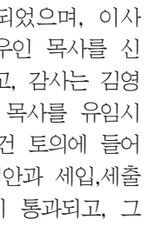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대한노회

노회장

장 한 국 목사 (주사랑교회)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승리교회)

서기

반민규 목사 (백호살롬교회)

회의록서기

박명자 목사 (도원생명수교회)

회계

유윤주 목사 (조에교정선교회)

대한노회 2014년 신년수련회 및 단합대회

• 일 시 : 1월 13일~15일까지
• 장 소 : 생명수교회(박명자 목사 시무)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2리
• 전 화 : 010-7309-0167

※참 고 / 숙소는 속초시내에 있는"금호설악리조트"가 됩니다.
대한노회 노회원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참석바랍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 외 임원일동 살롬

대 한 노 회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고흐7층)
☎ 031) 424-7612,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표어 : 새 천년을 새 소망으로 새롭게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2013년도 목표 :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 선교사 : 김경자
• 강도사 : 장정훈 이진영,
• 전도사 : 장성철,
• 반주자 : 한진경, 한송이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낮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토,저녁 6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촛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우 473-080]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7층
☎031)424-7612(교) H.P 010-4436-7060
홈페이지 : http://jlcn.kr

웨스트민스터 순천신학교(총회인준)
모집학과 및 자격특전 "정통 신학의 요람"

신학부	학과	학재	자격
신학부	신학과 목회학과	8학기	고졸,세례받은 자 학력제한없음
신대원	신학과 목회학과	4학기	신학부 졸업 및 예정자
특수 목회반	-	8학기	1. 청년퇴임 및 정년퇴임 예정자 2. 퇴임후 30년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원하는 자
평신도 성경강좌	-	4학기	장로,권사, 집사 직분자

■ (수시개강)
· 본 신학교는 한국장로교단이 사용하는 대소요리문답의 신조를 신봉하는 정통교단이며 한국교회를 리더 하는 표준교단으로 우수한 최고의 교수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본 교단은 한기총과 한장년 가입교단입니다.
· 아동 청소년 복지상담 지도자 · 노인복지 심리 상담사
· 다문화가정 복지 상담사 · 도형심리 상담사
· 여성복지 상담사 · 음악, 미술심리 상담사
· 특수아동복지 상담사 ·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지도자.
후보생 수시모집!!
목사안수 및 교단가입 문의환영


학장 정원춘 (Th,D 신학박사)

주소:전남 순천시 동외동 191-2
TEL 061-752-0191 HP 010-9049-3731

웨스트민스터 광주신학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78-10번지
전화 : 010-2778-3731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석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감사로 시작되는 삶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 3절 찬송가128장

본문 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감사와 간구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도바울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습관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

말씀: 빌립보서 1장 4절 - 5절 찬송가219장

빌립보 교회는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복음이 확산되는 교제였고 자발적인 교제였으면 일시적인 교제가 아닌 지속적인 교제였습니다. 오늘날 교제가 없는 현대의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 7절 찬송가287장

본문 6절 말씀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고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바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 11절 찬송가 411장

사도바울은 빌리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주시는 사랑은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임으로 나타난 역사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 18절 찬송가 449장

사도바울은 자기의 매임으로 인하여 시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로마에서 핍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매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매임으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향한 열정만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 - 21절 찬송가 348장

사도바울은 지금 재판의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하였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담대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으로 동행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 - 26절 찬송가 378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 난관에서 초조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어느 쪽이든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확신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 30절 찬송가 455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성도됨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 3절 찬송가 301장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됨의 생활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이며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호간에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 8절 찬송가 455장

바울은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포용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의 정심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 또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의 짐들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항상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 11절 찬송가 212장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존귀함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철저히 낮아져야 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 13절 찬송가 321장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 성화의 생활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되기 원합니다.

빛들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 18절 찬송가 502장

성도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섞여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충성된 일꾼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 - 22절 찬송가 502장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였음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장기간의 옥중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며 자기를 대신해서 성도들을 돌아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이 왔을 때 흔쾌히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희망정국

강군은 강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1961년도에 육군보병 신병교육대가 신설되었다. 논산 제2훈련소에서 6주간의 기본훈련을 받고, 2주간 후반기 훈련을 받은 후 전방부대로 배속되어 간다.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소속부대로 배치되는 신병도 있고, 후반기 훈련을 2주간 더 받고 전방부대에 배치를 받는 신병들이 많았다.

당시 전방부대에 배치를 받은 신병들은 논산훈련소의 훈련보다 몇 배의 강도 높은 훈련을 10개월을 더 받는 신병 교육대로 강군양성 훈련이었다. 지금도 기억되는 1962년 1월 13일 강원도 최전방은 영하 29.5도로 최고의 강추위였다. 극심한 추위와 눈발 속에서 야간산악훈련은 무릎까지 눈이 쌓여 미끄러져 나무에 상처를 입으면서 작전 훈련을 하였다.

야간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들어와 취침한 병사들, 곤한 잠이 들어 있을 때 비상사이렌이 울렸다. 주번하사의 지시는 즉각 알몸에 팬티만 입고, 오른발에는 군화, 왼발에는 실내화인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는 알철모를 쓰고 집총하고 3분 내에 연병장에 모이라는 비상훈련이었다.

신병들은 곤한 잠결에 일어나 팬티만 입고, 한쪽은 군화, 한쪽은 고무신을 신고 알철모를 쓰고 집총하고 밖으로 나가니 순식간에 온몸이 얼어 옆 사람 팔을 부딪치면 으스럭 소리가 났다. 당직주번 사관인 소대장의 복장은 털외투를 입고 가죽 장갑에 방한으로 완전무장한 복장이었다. 그날의 훈시는 장장 20분정도 했을 것이다. 강한 군인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군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해 사회에 나가면 오늘을 기억하라는 훈시를 한 후, 비위와 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당시의 연병장을 3열종대로 세바퀴를 구보토록 했다. 밤시경 캄캄한 연병장 구보는 너무도 힘들었다. 알철모로 인해 뒷머리와 앞이마와 코뼈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온몸은 얼어 만신창이가 되었다.

구보를 마치고 돌아와 취침에 들어간 전우들은 한없이 훌쩍 거리며 울다가 잠이 들었던 것이다. 배고픔과 추위와 강한 훈련으로 훈련병 모두는 얼굴에 광대뼈만 있었다. 훈련병 모두는 북한인민군과의 전쟁이 빨리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투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한 전방부대에서 35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 것이다. 그들은 오늘의 노병으로 살아왔다.

오늘 우리의 군은 어떠한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고 또한 복무기간도 18개월 이라고 하니 과연 강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국방임무를 맡은 군은 국가를 위해 사생결단 하는 강력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 되어야 한다.

북한군은 강인한 자신감을 표시하는 사열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과의 대조를 생각해 본다. 그들은 복무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비해 우리는 기본 훈련을 마치고 제대한다는 것은 북한과의 대치상태에서 너무나도 미약한 잘 못된 정책이다. 우리도 군복무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을 해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상황발생 시 즉각적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최신무기 시대라 하지만 강한 훈련과 군정신이 없다면 유사시에는 머리 숙이고 총초는 격이 된다. 높은 방벽이라 해도 강인한 군정신이 없다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업무를 재편성하여 육해공 모두가 군인으로서의 유단자를 만들어야 한다. 검도에 있어 4단자와 3급정도와의 대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군이 3급정도의 훈련과 군정신을 가졌다면 정부의 국방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4단은 4단자와 같이 겨루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대결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전방시찰에 분주하다. 쌍안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며 대남무력도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정책을 파행으로 이끌려고 하는 좌파들은 계속적인 투쟁 의식을 가지고 삭발을 하는 등 지원세력을 얻고자 시위를 하고 있다. 지방마다 천막 농성 시위로 정부 정책을 헐뜯고 있다. 진정 오늘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이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메스콤은 야당의 움직임에 보도 방영하고 있는데 비해 여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느낌이다. 여당은 국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심어 주어 국민이 신뢰하는 정책이 진행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합심하여 오늘의 안개정국을 바로잡아 희망 정국으로 가야한다.

잘 못된 좌파들의 정부 비판과 국민 분열을 좌시한다면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여야의 원들과의 임기동안에 안정 사회를 이루고 모든 분야에 희망정국으로 이끌어 국정에 임해 준다면 국민들은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향해 나아 갈 것이다.



서영웅 목사
퓨리탄 장로교회
본지 상임이사

축 성탄 근하신년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종 목사
(본지 상임이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 행복이 가득한
강릉정동진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해맞원
예/배/시/간/안/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천안총회신학신대원실천신학교수
서울 칼로스신학연구원 교수
지저스타임즈 상임이사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곽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평안교회

담임 김종환 목사
개혁총회 부총회장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150-054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4동 레미안@ 상가2층
☎010)6233-1515

화목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박용순 목사
본지 운영이사
435-739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 1055
매화A1410동 709호 ☎031)456-1464

2013년 표어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요 1:14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덕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안수집사 : 강정구
권 사 : 전순자, 김정예, 김은자, 진규자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314-060) 충남 공주시 이길 6-1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교회 및 팩스 ☎041)853-9966 e-mail:lov153@naver.com
홈피 코헬렛 http://lov153.cafe24.com

큰성산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임순종 목사
개혁총회 회의록서기
302-835 대구시 서구 변동 3-43
☎010)6413-3456

주찬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홍시나 목사
개혁총회 회계
480-837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30-4
☎031)821-0113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한국교회연합 2013 성탄절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낮은 데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구촌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질고와 시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기아와 테러와 전쟁의 어두운 소식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암울한 그림자와 함께 우리 모두를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면서 양극화라는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치권은 지난 10개월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각각의 진영으로 갈라져 귀를 막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대신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성직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매일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성직자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양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교만과 독선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작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 특히 인권을 박탈당하고 기아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합니다.

주님이 2천 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엔 화해와 위로의 따뜻한 손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나누는 것이 진정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진정한 의미임을 깨닫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위근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성탄메시지 평화의 선물 누가복음 2:1-14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어떠한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끌어 모아 놓아도 받은 은혜들을 다 기록하려 한다면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에서와 같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골1:21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주소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웃과 평화 할 수 있게 하시게 위해서 오셨습니다.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음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해서 다른 형제와 평화하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롬12:18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왕이 내 가슴이 항상 살아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무조건 일곱번씩 일흔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신으로, 평화의 대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환 목사
본지 이사장
(사)기독학술원장

한장총 성탄 메시지

구약 말라기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까지는 각 분야에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가 없었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하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금번 성탄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어두움의 북녘 땅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곳곳에 예수 탄생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후방에서, 해안 및 영공을 지키는 육해공군의 장병들, 그리고 곳곳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산업 역군들에게도 성탄의 따뜻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25,000여명의 한국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예수 탄생의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70%이상의 장로교회들이 예수탄생의 생명과 희망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떡을 나누는데 앞장 서는 나눔과 섬김의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만석 목사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용서와 평화로 하나되는 성탄

Merry Christmas! 성탄절은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천사는 들에서 쓸쓸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눅2:10)이라고 예수님의 나심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Big News', 'Good News', 복음(福音)일까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바라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사라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참된 구주, 평화의 왕이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권력자와 부자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 말똥 냄새 나고 말, 소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운 곳, 한기를 피할 길 없는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그 몸을 누이셨습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입니다.

희망이 없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도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을 누리고, 용서와 평화로 하나 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명진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온 누리에 전해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인 독생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초라하게 구유를 통해서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와 평화의 빛이 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에 가득하게 비취는 소망의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한국교회는 분열과 갈등, 분쟁으로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주성탄을 맞아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망과 권리를 내려놓고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기초아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단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앞세우는 양보와 헌신의 미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온갖 미움과 갈등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탄생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김형원 장로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대표회장

축 성탄 근하신년

「2013년」구독료 납부기간입니다

지저스타임즈(신문)은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12월 구독료 납부기간이오니 구정 전 2014년 1월 24일까지
확인을 위해서 구독자 성함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2013년 1월~12월 구독료 48,000원 ▣

· 신한은행 314-12-250410
· 우 체 국 310029-02-152769
· 농 협 455030-56-005509
·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국민은행 455-21-0339-406

바른소식을 전하는... CJTN TV 기독뉴스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02호
TEL 070)8230-0034 Fax 032)672-3031
광고문의 / 016-478-6574

www.inamhyu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현교회
"2013년 표어" "넘쳐나는 교회"
전도로 구원받는 백성이 넘쳐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훈련으로 성숙한 일군이 넘쳐나는 교회
담임목사 이춘복
비전 2020
1.열정적 전 도
2.전인적 양 육
3.사랑의 공동체
4.감격의 예 배
5.기쁨의 봉 사
6.즐거운 교 제
7.능력의 선 교
예배시간 안내
주일낮예배 1부 주일 오전 7시30분 대예배홀(3층)
2부 주일 오전 9시30분 대예배홀(3층)
3부 주일 오전 11시30분 대예배홀(3층)
주일청년예배(부) 1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비전홀(1층)
2청년부 주일 오후 2시30분 1세미나실(2층)
주일오후예배 주일 오후 3시 대예배홀(3층)
수요예배 오후 7시30분 대예배홀(3층)
수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30분 대예배홀(3층)
새벽기도회 1부 매일 오전 5시 비전홀(1층)
2부 매일 오전 6시 비전홀(1층)
주일학교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부(3세이하) 1층 영아부실
유치부(4-7세) 1층 유치부실
1초등부 2층 1초등부실
2초등부 2층 2초등부실
중등부(중1,2,3) 2층 중등부실
고등부(고1,2,3) 2층 고등부실
테아사랑학교 1층 유치부실
아기학교 1층 유치부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46(개봉동 170-18)
전 화 / ☎02)2618-8877-8, 2060-9123
FAX 2060-9124 / 당회장실 ☎ 02)2684-3317

한국기독교장로회 홍성제일교회
2013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년예배: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지유집회 금요 밤 9:00
교회학교: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육학교 주일 오전 9:00; 중, 고등부 토요 오후 4:00; 대학부 토요 오후 6:30; 청년회 토요 오후 6:30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수요기도회부 매주수요일 오전 10:00; 수요기도회2부 매주수요일 오후 7:30
문화교실
순번 구분 시간
1 홍남사모어가대미 화요 오전 11:00
2 바둑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수요 오전 12:00
4 재자훈련 주중 정한시간
5 오동이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오동이 주중 매일
8 새덕단련 주중 매일
9 홍성여울평생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서선생대학 오전반 (수, 목) 오후반 (화, 목)
담임목사 오종설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 정연수 목사
www.myhyosung.net
정규예배
주일 전통예배(1부) 오전 9시 레인보우 아트홀
주일 현대예배(2부) 오전 11시 레인보우 비전홀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 레인보우 아트홀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 레인보우 비전홀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백두홀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고목관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레인보우 아트홀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레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부 매주수요일 오전 10:00 레인보우 아트홀
수요기도회2부 매주수요일 오후 7:30 레인보우 아트홀
금요기도회 매주금요일 오후 9:30 레인보우 비전홀
새가족모임/주간 주일 오전 9:30 새가족실
경로교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레인보우 아트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축 성탄 근하신년

중흥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부 11시
2부 오후 2시, 5시

담임 **엄신형** 목사
한경총 증경총회장

134-88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30-2
☎02)476-7131

함께하는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7시, 11시
오후 2시, 7시

담임 **이상재** 목사
한경총 총회장

423-06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65번지
☎02)898-0539

한국경목총회





담임 **홍항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 신학원 원장

152-803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63-20 성민B/D 7층
☎02)583-1955, 010-7585-1955

예장 동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30

담임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153-80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1-47
☎02)3281-3173

예장 평안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부총회장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예장천복복지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합동보수 서기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예장풍성한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합동보수 회의록서기

429-81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031)315-8290

양문교회/양문 어린이집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시무 **송인섭** 장로
합동보수 회계

400-160 인천시 중구 경동 177
☎032)766-7654 0023

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합동보수 총무

404-200 인천시 서구 공촌동 314 경남@ 103-506호
☎070)7501-2584

신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본지 부사장

403-811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주성청각장애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 일 오전11시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후 8시
새 벽 5시

담임 **우슬초** 목사

702-735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70)4220-7735, 053)741-7732

서울소망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본지 상임이사

139-86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02)3296-0340

서울개혁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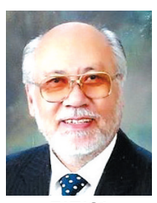




담임 **윤 관** 목사
증경총회장
서울개혁신학교 총장

482-735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세창@ 108-1201호
☎010)3758-8905

성남개혁총회신학





담임 **김정열** 목사
개혁총회 총회장
성남개혁신학교 학장

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9-4 (5층)
☎041)534-8765

기독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주일예배안내

오전 11시
오후 2시30분

담임 **임해숙** 목사

441-85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T/F: 031)224-4947 영상전화: 070-7947-4798
H.P; 010-4611-3221(문자)

우리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조재호** 목사
개혁총회 서기

477-805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31-3
☎010)6266-1331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윤주** 목사
법무부 교정위원
영적복음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884-5 202호
☎ 070-8632-6993 / 010-3035-5704

쉴만한물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토요일 제외)
이린이부예배	주일 오전 9:30
중, 고등부	주일 오전 9:30
대학, 청년부	(토) 저녁 7:00
심야 기도회	(금) 저녁 9:00
프리셉트 성경공부	(화) 오전 9:00
	(화) 오후 7:00

담임 **김안식** 목사

(360-170)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46-9번지
TEL 043) 217-0191, 070-8666-0691

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





담임 **이범성** 목사
대표회장

157-881 서울시 강서구 확곡1동 348-21 호용B/D 6층
☎02)2608-2190, Fax 02)2608-2191

수목원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및 논설위원

152-102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 343번지
☎02)2683-2091

축 성탄 근하신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모상련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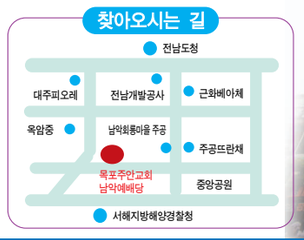
예배안내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30	3,4층 대예배실
		2회	오전 10:00	
		3회	오전 11:30	
	저 녁 예 배		오후 7:00	
수요일	수 요 예 배		오후 7:30	
금요일	금 요 예 배		오후 9:30	
토요일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5:00	
매 일	새 벽 예 배		오전 5:00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30	2층 새롬반실
		2회	오전 11:30	
	유초등부	1회	오전 8:30	3,4층대예배실
		2회	오전 10:10	2층 영산강홀
	중 등 부		오전 9:00	2층 영산강홀
	고 등 부		오전 11:10	2층 영산강홀
	영 어 예 배		오후 1:30	5층 두란노홀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 분들

부목사	정동현 모정선 송호성 모성온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김마령 안윤기 김진희
협동목사	장장화(은퇴) 서기옥
전도사	추정희 배순달
교육전도사	송선택
시무장로	고재련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선호 원복희(휴직)
은퇴장로	노남구
협동장로	문환웅 이병화



찬양대	지휘	반 주
할렐루야	고정현	장주영
아멘	한문희	박애숙
셀라	모정선	최운정
임마누엘	문정인	정다솜
글로리아	한문희	최운정
유빌라테	고 성	이지연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정충현교회



당회장 이효은 목사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총재)

시무장로 : 신오식, 정종국, 김홍령

화정교회는 말씀이 좋고,
행복한 교회로
가정을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2013표어

"사랑으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섬기며 전도하여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늘 노래하는 자는 무병장수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병장수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시편9:11)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자"
1.예배의 삶의 초점 맞추고 전도하라.
2.온전한 십일조와 감사로 물들라.
3.부모공경으로 효를 다하여라.
4.봉사, 섬김으로 복을 쌓아가라.

예배시간
주일오전예배 : 오전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30분
금요기도회 : 밤 9시
새벽기도회 : 새벽 5시 (주일~금요일)
유-초등부 : 오전 9시
중-고등부 : 오전 9시
청년부 : 오후 3시30분

찾아오시는길

〈도시형버스〉
1 중산 ↔ 화정 85-1 고양동 ↔ 송정전철역
850 고양동 ↔ 행신역
706 교하 ↔ 서울역 7728 대화동 ↔ 신촌

〈좌석버스〉
85 고양동 ↔ 김포공항 800 내유동 ↔ 신촌
9701 가좌동 ↔ 명동 9713 본일산 ↔ 서울역
〈직행좌석〉

82 내유동 ↔ 영등포 1900 본일산 ↔ 서울역
〈시외버스〉 3700 의정부 ↔ 인천
〈마을버스〉 6, 6-1, 6-4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출구 (도보 8분거리)

주소 : 412-8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8번길 27(화정동)
교회(031) 966-0015 (FAX겸용) 자택 (031) 965-7682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담임 **임찬미** 목사

강남북된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행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복된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05-18 ☎ 070-7443-7277





한보협, WCC 대책위원회 경과보고대회

한국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기보협)는 WCC 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대회가 오는 23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에서 한홍교 목사(WCC대책위 공동회장) 사회로 개최하게 된다.

대 회 사, 지왕철 목사(WCC 대책위 회장)

본인은 (사)한국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직전 회장으로서 그 동안 보수신앙의 중요성을 줄기차게 역설하여 왔으며, 인본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 현실을 개탄하면서 보수신앙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오던 중, 본인이 대표회장으로 재직시 2009년 8월에 WCC 제10차 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에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교회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갈 1:6-9에 의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복음의 변질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기에 이에 비춰 보면, WCC는 저주를 백번 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 주의라고 밝히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 중에서도 보수교단라면서 WCC와 견줄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주저함 없이 담대히 싸워서, 이겼다고 자부하면서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규 탄 사, 한홍교 목사(WCC 대책위 공동회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WCC사탄들의 광란의 굿판을 분쇄하고 영적으로 흉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 원흉들의 망령된 행동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고 수없이 규탄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분스럽고 통탄한 일들이 지만 그러나 이제 그 어지러웠던 모든 일들은 유감스럽지만 다 지나갔으며, 그동안 사탄의 회 WCC로 인해 상처받고 갈등하며 아파하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잘못된 기독교의 개혁을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모으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앞장을 서자고 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영혼들이 속히 치유 받기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울러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부탁했다.

집회 경과보고, 박동호 목사(한보협 상임회장)

1차 집회(일시/2013년 1월 16,17,18일 한기총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11차 집회 2013년 11월 2일 부산 벡스코 앞까지 주의 몸 된 교회와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한 WCC 반대집회를 가졌다며 경과를 보고했다.

결과보고, 송춘길 목사(WCC 대책 상임위원장)

제10차 WCC 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에 유치된 지난 2009년 8월부터 WCC총회가 끝나는 2013년11월8일까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는 한 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처음부터 끝 까지 모든 기간 동안 WCC에 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처해 왔다고 했다.

그결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는 제10차 WCC 부산총회를 실패로 끝을 내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잠자던 한국교회가 깨어나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힘든 싸움이었지만 사단법인 보수교단협의회의 그러한 노력과 열정으로 인하여 인본주의 WCC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지켜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역사가 있기 까지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과 특히 지왕철 WCC대책위 회장과 한홍교 공동회장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배후에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했다.

인사말씀, 이범성 목사 (한보협 대표회장)

WCC는 교회단체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이설을 앞세워 교회의 근간을 해치고 십자가의 도를 훼손하는 이단이며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수 십 차례의 회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WCC 대책에 고심에 고심을 더 하였으며 WCC 정체성을 고발하는 수많은 책자를 인쇄하여 한국교회에 널리 보급하여 WCC의 숨은 간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11번의 장외 시위집회로 WCC 정체성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부산총회 철회를 촉구하여 WCC의 막강한 세력을 꺾는 선봉장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였음을 밝혔다.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의의 군사로서,
빛의 사자로서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더욱 감당을 다짐

앞으로 (사)한기보협은 십자가의 도를 훼손하거나 교회의 근간을 해치는 WCC와 같은 이적 단체가 한국에 있는 주의 몸 된 교회 안으로 발붙이지 못하게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의의 군사로서, 빛의 사자로서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더욱 감당을 다짐하면서 감사했다.

성 명 서, 민정식 목사(한보협 사무총장)

제10차 WCC총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동의도 없이 야욕에 사로잡힌 몇몇의 목사에 의하여 2009년8월에 대한민국 부산에 유치됨에 따라, 본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곧 바로 WCC정체성을 연구 검토하게 되었고 그 결과,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나, 비 윤리적이며 비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인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해 11월에 이를 규정하고, 2010년1월 교계지도자 신년하례회때 (국회 도서관 대강당) WCC를 규탄할 것을 결의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는 WCC의 정체성을 한국교계에 알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논의와 함께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던 중, 금년 1월 13일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WCC부산총회한국준비위원장 김삼환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WEA한국준비위원회 길자연 목사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WCC부산총회 개최를 지지함으로, 그 같은 행위를 보수신앙을 팔아버리는 야합행위로 간주하고, 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는 동년동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리 수호를 위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앞에서 시위집회를 시작으로 11월2일 부산 벡스코 WCC규탄집회까지 11개월 동안 무려 11차례의 장외 시위집회로 WCC의 거짓과 간계로부터 십자가의 도와 한국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왔다.

앞으로도 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는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행사로 십자가의 도와 주의 몸 된 교회를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의의 군사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사명 감당에 전적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단호히 맞서 싸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날 예배위원은 예배인도 한홍교 목사(WCC대책위 공동회장), 기도 신한철 목사(합동보수 총회장), 대회사 지왕철 목사(WCC대책위 회장), 경과보고 박동호 목사(한보협 상임회장), 결과보고 송춘길 목사(WCC대책위 상임위원장), 격려사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 성명서 낭독 민정식 목사(한보협 사무총장), 인사말씀 한보협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폐회기도 남성운 목사(한보협 증경대표회장) 등이다.



중독 없는 이천시 만들기 발대식 개최

세계성시화운본부가 주최하고 이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명현 목사)와 이천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중독 없는 이천시 만들기 운동' 발대식과 서명운동이 이천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명현)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대식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명현 목사, 준비위원장 이요한 목사, 사무총장 윤철상 목사를 비롯한 성시화운동 지도자들과 이천시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이천시 각 사회단체장, 이천시 각 교회 및 기독기관 목회자와 성도,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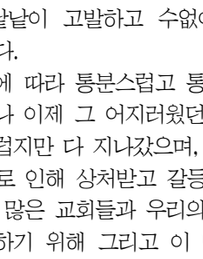
23일 오전 11시
이천순복음교회,
중앙통문화광장
사거리에서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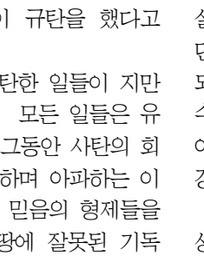
이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명현 목사는 "지난 12월 4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 이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국민 중 333만 명이 외래 치료가 필요한 중독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 이천시에도 알콜,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는 시민들이 있을 텐데,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대식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이천시 중앙통 문화광장거리에서 '중독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축 성탄 근하신년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 수 영 목사
- 행복샘전인치유센타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강사단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최병옥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로 고침받음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 예 배 시 간 안 내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00-18(신천동)
☎ 053-752-8238 010-8537-8291

은총 기도원



매월 첫째주(월-목) 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주(월-목) 정기성회
(세계주영광 부흥사회 주관)

원장 주은총 목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 : 010-6327-0191, 070-7518-0195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심령부흥 성회



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 예장(백석) 인천노회 소속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인천)부흥사연수원장
- 지저스타임즈부흥사협의회 사무국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본사 사무국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http://kmission.onmam.com / cafe.daum.net/kmission
☎ 032)891-0651, 010-2080-0651

에녹부흥 사관학교

대 표

곽영민 목사

교장(서울) 교장(인천) 사무국장 교수

김명옥 목사 김해자 목사 윤광석 목사 김성립 목사

교 수 진

김선우 목사 김영중 목사 이창광 목사 곽영민 목사

■곽영민 목사 약력
· 등불교회 담임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 에녹부흥사관학교 대표(연수원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협의회 5대 대표회장
· 지저스타임즈 부흥사회 사무국장
· 지저스타임즈 인천지사장
· 지저스타임즈 본사 사무국장

http://kiea.onmam.com

교재제공 및 회비 없음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2시
☞장소 : 충만교회 · 총회신학연구원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1동 8-7 2층
☞문의 : (대표)010-2080-0651, (사무국장)010-2008-5072

총회신학연구원 신학생 수시 모집
(문의:학장 김해자 목사 010-5517-7223)

지저스타임즈 창간 8주년기념 및 송년회 열어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이 주셔야 큰일을 할 수 있다"



창간 8주년을 맞은 지저스타임즈(이사장 정기환 목사)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46 남현교회(이춘복 목사)에서 교계지도자들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언부협 사무국장)의 인도로 1부 예배에서 부사장 전예희 목사(언부협 실무총재)의 기도와 복음가수 이은종 전도사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고 자문 이춘복 목사(언부협 고문, 남현교회)는 봉독한 행18:1~4절을 인용 '만남'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설교에서 "인생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다 좋은 만남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나 자신인데 어떤 만남과의 관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 해도 끝까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가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큰일을 하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서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는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이어 운영이사 정중환 목사(언부협 예능부 공동회장)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란 봉헌찬송을, 운영이사 조영만 목사(언부협 실무총무)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또한 부이사장 이규필 목사(언부협 부총재)는 계 22:12절을 봉독한 후 '만남을 통해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올 1년 동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주겠다는 그 상을 향해서 열심히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본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또 언론부흥사협의회를 감당하게 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전하며 축사했다.

이어 상임이사 조강수 목사(언부협 지도위원)는 "본지 창간 8년을 축하하면서 많은 언론인 방송인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본지 발행인 정기남 목사는 용기 있고,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진실 되게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소망이 있고, 좋은 만남 속에 본지가 더욱 비전이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대표하는 복된 신문과 방송이 될 줄로 믿고, 아울러 언론부흥사협의회도 여기에 맞추어 마지막 주님을 만나 뵐 때 까지 진실하고 깨끗하게 끝까지 복된 만남가지고 미래에 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사"했다.

상임이사 박동호 목사(언부협 상임회장)는 "발행인의 창간사를 낭독하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발행인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뛰다보니 눈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속히 건강을 위하여 신문사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수술받고 건강회복을 염원하면서 권면했다.

상임이사 홍항표 목사(언부협 부총재)는 "계 2-3장의 일곱교회의 표본을 설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12가지 축복은 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문서선교를 위하여 이 길을 가야하는 발행인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게다가 본 발행지를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어 좋았다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의 문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본사와 JTNTV방송이 잘 되길,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복음에 입각한 신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신문방송, 누구든지 신문을 읽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메시지가 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체가 되라며 권면했다.

이에 따라 사장 소진우 목사(언부협 연수원장),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언부협 부총재)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언부협 대표회장)가 이사 및 언부협 총재와 부흥단을 소개하고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의 광고가 있었다.

특별기도 순서로 운영이사 이순희 목사(예능부 공동회장)가 신문방송을 통한 문서선교와 발전을 위하여, 운영이사 유윤주 목사(언부협 회계)가 문서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상임이사 장한국 목사(언부협 부총재)는 해외 27개 지사 및 국내 24개 지사를 위하여, 사회부 기자 임요한 목사가 국가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남현교회와 회원들의 가정을 위하여 각각 기도를 하고, 언부협 총재 이효은 목사의 축도로 8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마쳤다.

또한 2부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회의 회의는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상임이사 서영웅 목사의 기도가 있었고, 아울러 지난 1년 동안의 신문방송 운영과 언부협 사업보고 등이 있었으며, 신문방송을 위하여, 언부협을 위하여 기도회를 갖고 중부지사장 박양우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신문방송 및 언론부흥사협의회의 신년하례식은 2014년 1월 24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결정되는 데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박윤식 목사 이단성 없다... 해제시켜

한기총, 제24-4차 실행위원회에서 박윤식 목사 40년의 이단 풀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17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부총무 윤덕남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33개 교단 및 단체가 참석하고 7개 교단 및 단체가 위임하면서 성수가 되었다. 개회선언, 회순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정관개정의 건(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종무2담당관-3228'에 의거)은 제39조(정관개정) 3항을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였고, 제44조(부칙)에서 '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항은 삭제하였다.

또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2013 카합738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판결에서 "민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관개정결의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관개정결의는 사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한 것을 보충설명하였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요청 검증 보고서'가 상정되었고, 이대위원장 이건호 목사는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에 대한 판단과 결론'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면 왜곡된 것들이었다"며 "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으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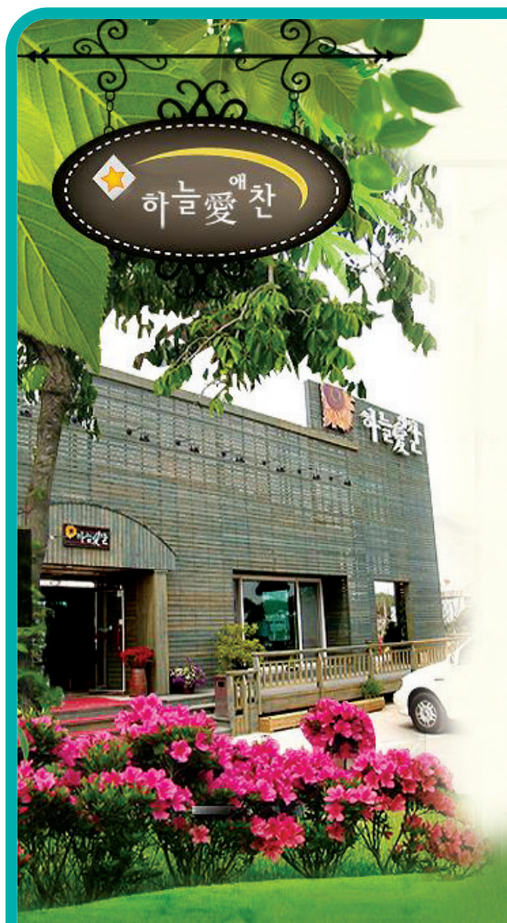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검증 소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는 "이번 검증은 박윤식 목사가 직접 설교한 것과 직접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연구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최삼경을 비롯한 이단감별사들은 박윤식 목사를 무지막지하게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거짓말로 모략을 해서 이단으로 덮어 씌웠다"며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고 한 것도 동명이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진판독 결과 전혀 다른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 "박윤식 목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이단 아닌 이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최삼경이 주장했던 7개 항목과 합동측 박용규 교수가 주장했던 10개 항목 모두를 52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박윤식 목사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고, 박윤식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사도신경을 고백하였고,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신앙고백을 하였으며, 앞으로 박형용 박사의 구원의 서정과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다"고 밝혔다.

예영수 박사는 "하나님 앞에 추호도 거짓이 없는 정확하고도 진실한 검증을 하였음을 여러분에게 밝힌다"며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까지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박윤식 목사를 풀어주심으로 편안히 눈을 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보고는 동의와 제청 이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였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김송수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황덕광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하였고, 이강평 목사(공동회장)가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엄신형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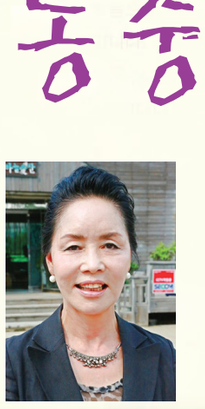


영종도 최고의 맛 자랑

- 축 성탄 근하신년 -

영종도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 전문점

032-752-5292
010-5420-0153
예/약/및/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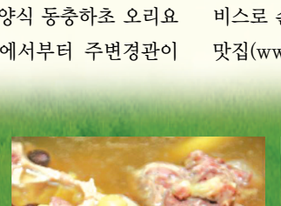


소문난 하늘애찬은 친절과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하늘애찬.kr)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영종도 대교를 지나 인천시 중구 운남동을 들어서면 한번 가면 다시 찾는 소문난 맛집, 최고의 맛 집이 있다. 그 유명한 보양식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 하늘애찬... 입구에서부터 주변경관이 운치 있는 풍경과 정갈한 인테리어로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게다가 깔끔한 음식솜씨는 미식가들의 환호와 찬사가 끊이지 않는 하늘애찬 동충하초 오리요리전문점(사장 서명희 여사), 170여석을 갖추고 3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친절하고 서비스로 손님을 최고의 VIP로 모시고 있는 소문난 맛집(www.하늘애찬.kr)입니다.

동충하초가 들어간 오리요리는 그 효능이 뛰어나고 맛과 조화를 이룬 보양식으로 소문이 나 있다. 당뇨와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아무리 먹어도 물리지 않은 이로운 고기라고 자부합니다. 동충하초(冬蟲夏草)의 효능에 대해 위의 기사내용을 꼭 한번 읽어 보세요.

대표 서명희 권사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348-11
전화 : ☎ 032-752-5292 HP 010-5420-0153(사장 서명희)
사업자 등록번호 : 121-18-32838 www.하늘애찬.kr

장한국 목사, 필리핀 세부지역 단기선교 기행문

주사랑교회의 성도들의 배웅을 받으며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장한국 목사 외 선교단원(박인숙 사모, 이유경, 배현영 집사)이 지난 달 19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일 새벽 막탄 공항에 도착했다.

장한국 목사는 지난달 초 초강력 태풍 '하이옌'과 보홀 지역 지진과 타클로반 지역의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한 결과 선교 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다.

특히 장 목사는 세부 지역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이미 2011년 11월경 요한계시록 강해의 영어직강을 시작으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셨고 세미나를 통해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세미나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장 목사는 "God of the Living One"(산 자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영어로 직접 강의하는 집회가 이틀 동안 힘 있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세미나 내내 진행자들의 실수와 성령의 역사를 훼방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어려움도 있었다. 게다가 카톨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영적 흑암에 쌓여 있는 그들이기에 한국 문화와 필리핀 문화의 충돌이 아닌 하늘 문화와 필리핀 문화의 충돌이 여실히 나타났다.

장 목사는 또한 세미나에서 카톨릭의 오랜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성경의 바른 정답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갈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영만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의 몸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에 속한 천국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 따라서 옛사람인 필리핀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

강사로 나선 장 목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지식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모든 참석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씩 하나씩 영적 단단한 양식을 대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점 어두움이 없도록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 멜기세덱이 창 3:8과 요 1:48-51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 창 3:21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어 구원의 표징이요 산 자된 것임을 밝히 드러냈다. 우리도 아담과 함께 이 구원의 은총이 해당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약 125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목회자들의 귀, 입, 마음이 똑같이 움직여져 갔다. 강사로 나선 장 목사의 열강에 참석자들의 귀와 눈은 교재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마다 진심으로 "에이-멘"으로 화답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미나가



필리핀 세부지역 성도들과 125명의 목회자들을 감동시킨 세미나

끝나고 지난달 24일 주일, 아기야 총장(임마누엘 신학대학교)이 시무하는 RACE교회에 주일 낮 예배 설교에 초청을 받은 장한국 목사였다. 장 목사는 영어로 직접 대예배에서 30분간 말씀을 선포했으며, 성령께서 회중가운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확신했다. 특히 담임 목사이기도 한 아기야 총장과 사모가 크게 은혜를 받았다며 기뻐하면서 설교 후 간증과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다.

주일 오후에는 침례교단의 선교사가 주일학교 중심으로 사역하는 Immanuel Christ Church로 이동을 했으며, 이곳에서 주일학교 특별집회를 부탁받았다. 장 목사는 이곳 아이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는 담임 교역자의 안내를 받고 즉석으로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 3명을 세워서 장 목사의 영어 설교를 비사얀어로 동시통역하게 하고, 아이들이 듣기에 쉬운 영적 어휘를 사용, 아이들 수준에서 깨닫기 쉽게 또 의성어까지 섞어가면서 재미있는 말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다.

이어 선교단원들(이유경 · 배현영 집사)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배현영 집사의 찬양과 율동 인도는 세미나와 각 교회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마지막 시간에는 박인숙 사모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도 전달해주는 등 주님의 사랑이 넘쳐났다.

박인숙 사모는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사역에 장 목사와 늘 함께 동행 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주의 선교사역 현장에서 베드로의 자매된 아내와 같이 장 목사의 동역자요 주님의 일꾼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전 우주적으로 종교 통합의 활동이 왕성해가고 복음과 진리가 변질 · 신앙정절이 타락되어가는 교회가 배도 음녀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때에 따른 양식을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를 통해 영어권으로 전파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무쪼록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필리핀 국민들과 교회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역사로써 속히 복구 · 회복된 행복한 삶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갱신의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한다.

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추수의 종들로 세우는 선교의 문이 더욱 확장되며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하늘의 최고의 복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역사가 계속되어지길 소망한다.

필리핀 단기선교 기행문,
동행취재 이유경 기자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 제3대 임해숙 담임목사 취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특수지방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는 지난 12월 10일(화)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62, 소재에서 서울방주농아교회의 임해숙 목사(62)가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고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송명환 목사(총무/남원에바다농아교회)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윤여진 간사의 수화로 진행되면서 이영준 목사(나주에바다농아교회)가 기도를, 김영삼 목사(안산농아인교회)가 성경 고전9:14~23절을 봉독하고,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이상재 목사(경찰청 한경총회장)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복음은 기쁨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임해숙 목사는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까지 보내주셨다. 또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원' 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처럼 진실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애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해숙 목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성도들과 뜻을 같이하여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는 일군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사회자가 취임하는 임해숙 목사를 소개하고, 지방회장 정창열 목사는 취임하는 임 목사와 교인들에게 서약을 갖고 임 목사에게 담임목사의 치리권을 부여하고 공포했다.

아울러 정창열 목사가 격려사를, 김병택 목사(증경총회장, 서울비전농어교회)가 권면을, 홍항표 목사(사도영성신학원장, 사랑의교회)가 축사하고, 선물증정과 임해숙 목사의 취임인사가 있었다. 임 목사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제 3대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지금까지 수원할렐루야농아교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드립니다. 특별히 경찰청 경목총회 총회장 이상재 목사님과 홍항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는 원근 각처에서 오신 분들과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아울러 수원할렐루야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취임인사를 했다. 이어 증경총회장 수원농아인교회 이상휘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하나님 제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 저를 바치겠습니다

조영만 목사 저서 책 머리에



4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당에 다니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작약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 가신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제 아버지가 불구자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시신을 보며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며 하나님을 떠나 만 6년 동안 술과 환각제와 대마초 등 온갖 더러운 일에 빠졌고, 그런 저를 두고 가족들은 다 외국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혼자 남아 1988년 7월 초에 자살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인 7월 17일만을 기다리며 살 때,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 199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복지사로 성폭력상담소 소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과 인천 시청, 인천 동구청, 인천 매트로 기독 신우회 지도목사를 하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2010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거듭난 확실한 경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주님의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하고 항의했을 때, 주님은 제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고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텔레비전 시청을 끊고 육체의 정결함과 혼의 거룩함을 위해 처음 거듭났을 때와 같이 말씀묵상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뚜렷한 사명이었습니다.

2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가 강해를 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아무리 아가를 읽고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덮어 놨습니다. 이걸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성령님이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두 구절씩 강해를 해 나갔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72주 동안 아가 강해를 한 것입니다.

아가 강해를 통해,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당당히 맞이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가강해 상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목차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 7
1.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 9
2. 신부로서의 첫 출발 ▶…… 16
3. 왕의 침궁을 경험한 신부 ▶…… 23
4.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신부 ▶…… 29
5.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신부 ▶…… 35
6. 다시 친밀함을 갈망하는 신부 ▶…… 42
7.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방법은? ▶…… 49
8.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 56
9. 왕의 상에 앉으려면? ▶…… 63
10. 신부가 인식하는 주님은? ▶…… 69
11. 네 눈이 비둘기 같아 어여쁘다! ▶…… 76
12. 어여쁘고 화창한 주님! ▶…… 85
13.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 92
14.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 ▶…… 99,
15.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주님! ▶…… 101
16.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 109
17. 주님과 신부와의 불일치 ▶…… 116
18. 일어나서 함께 가자 ▶…… 124
19.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 131
20. 작은 여우를 잡으라 ▶…… 137
21. 주님의 임재를 잃은 신부 ▶…… 144
22.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의 회복 ▶…… 151
23.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 159
24. 주님과 하나가 된 신부 ▶…… 167
25. 주님의 면류관이 된 신부 ▶…… 174
26.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 183
27. 세 번째 칭찬과 신부의 성숙한 상태 ▶…… 191
28. 성장한 신부의 미덕 ▶…… 199
29. 입술과 입과 뺨의 칭찬 ▶…… 201
30. 신부의 강력한 의지의 칭찬 ▶…… 209
31. 여덟 가지 칭찬의 결과 ▶…… 216
32. 신부의 승천 단계 ▶…… 224
33.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 ▶…… 232
34.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 241
35. 성장한 아름다운 신부 ▶…… 249
36. 주님을 위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 257
37. 네게서 나는 것은 ▶…… 264
38. 성장한 신부의 미덕 ▶…… 272,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아 4:10)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나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아 1:8).

2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가 강해를 하라"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아가를 읽고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덮어 놨습니다. 이걸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강해를 합니까?"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성령님께서 "아가는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가 되는 길을 알려 주는 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두 구절씩 강해를 해 나갔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72주 동안 아가 강해를 한 것입니다. 아가 강해를 통해,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당당히 맞이하시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자의 책머리에 중에서





■ 저자 조영만 약력
· 인하부고 10회
·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 총회신학교
· 국제신학대학원(M.Div, M.A)
· 사회복지사 2급
· 상담심리사
·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사
·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
· 사)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
· 인천 시청 기독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도시철도 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인천 종합건설본부 신우회 지도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교단 총무
· 기독한국 153부흥사협의회 부총재
· 현재 시온교회 담임목사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온교회 신한은행 100-029-475990
책 값 한 권당 12,000원입니다. 신청 권수에 상관없이 입금 확인 후 무료 배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보내기에 3,4일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익금 전체는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하) 출간과 히브리서 강해, 신부단장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 출간하는데 사용합니다.
*전국 대형서점 어디에나 판매됩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 강해 상)/ 저자 조영만목사 / 나됨출판사

■ 도서출판 나됨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점으로 시작한 출판사입니다.
영성이 담긴 진솔한 책들을 펴내 몸이 가지 못하는 곳의 전도와 선교를 담당해 선교의 물꼬를 터 나가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은 한 권의 책은 마음의 빗장을 넘어 이웃의 담장을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싣고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믿음의 전사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양떼들에게는 신령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SONG OF SONGS



ISBN 978-89-94472-22-5
값 12,000원 / printed in korea

TEL : 02-373-5650 / 010-2771-5650
NADOEM@NAVER.COM

HTTP://WWW.NADOEM.CO.KR
책표지 최예닉(02-373-5650)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

한기보협 2013년 교단지도자 송년회 열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한기보협)는 12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예루살렘교회(문제선 목사시무)에서 본협 2013년 교단지도자 송년회를 가졌다.

문제선 목사(사명자총회 총회장)의 예배인도로 이의근 목사(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가 기도를, 홀리(S)예술 무용단의 워십찬양이 있은 후 공동회장 한홍교 목사는 시 90:12절을 인용"시간의 분깃"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한 목사는'내 인생의 배정된 분깃의 시간을 1초 1각이라도 흘려서는 안 되며, 송년의 시간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자고 했다. 또한 우리의 분깃인 목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분깃을 관리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설교했다. 따라서 교단지도자들은"나라와 민족, 협의회, 가입단체"를 위하여 합심기도를, 찬양사역자 박장미 목사의 봉헌찬송과 합동보수 총회장 이창희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날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는 인사를 통해"올 한해 WCC 반대운동에 수고가 많았다며 격려하고, 본 협은 교단지도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한국교회를 살려야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WCC 세계 종교다원주의 사탄마귀들의 집단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애타는 심정으로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즐거운 성탄과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했다.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 후 상임고문 지왕철 목사의 축도,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의 오찬기도가 있은 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과 문제선 목사가 정성을 다해 점심을 제공했다.

피종진 목사 12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1(주일) 오후	안양 성산교회(오범열 목사) ☎(031)444-1563
2(월) 오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대표회장 김정훈 목사) 장소: 숙명여고 대강당
2(월)~ 4(수)	부산 좋은교회(오제일 목사) ☎(051)523-3143
5(목) 오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 국가 안정을 위한 기도회(대회장 문수영 목사)
5(목)~ 6(금)	강원도 고성연합성회(대회장 김영현 목사) ☎ 010-3394-9191
	주최: 전기총신문사(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김영현 목사)
8(주일)오후	서울 강남 일원지역 성탄절 연합성회
	주최: 강남일원지역연합회(회장 김영주 목사)
	장소: 개포감리교회(안성옥 목사) ☎(02)2226-9220
9(월)~11(수)	중국(China) 심천 국제우주 및 창의체험교육전, 한국상품관 개관
	(중국대회장 구양상산, 한국대회장 김대웅) 장소 : 중국 심천 문박궁
12(목) 오전	(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13(금) 오후	기도치유아카데미(이사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장요한 목사)
	장소: 세종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041)852-2211
13(금) 철야	안양 갈멜산금식기도원(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15(주일) 오후	서울 인창교회(이정원 목사) ☎(02)988-8282
16(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종인 목사)
	장소: 남서울중앙교회 ☎(02)3411-9191
16(월)~19(목)	서울 강남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23(월)~25(수)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 성탄절 행사 ☎(02)3411-9191
26(목)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지도자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
	장소: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26(목) 오후	이애라글로벌찬양율동신학(학장 이애라 목사)
	송년기독예술제 ☎(02)587-2147
31(화) 저녁	남서울중앙교회(원로목사 피종진, 담임 여찬근 목사)
	송구영신 축복기도성회 ☎(02)3411-9191

010-5255-7777
jongjin7777@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T:02)3411-9191
F:02)401-7770
F:02)3411-9111

축 성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마1:23절)

謹賀新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 사 : 이주홍
협력선교사 : 김종록, 서승학, 차명호, 권오성
장 로 : 임청수, 김성기, 이청옥, 심재헌, 김준현, 고재훈
명예 장로 : 곽형희
심방전도사 : 원명숙
교육전도사 : 양승숙, 이민규, 전윤구
성가 대장 : 박남희
지 휘 : 조은총, 박한솔
반 주 :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새 벽 예 배	오전 4: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감발달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6:30	학 생 부 예배	오후 4:30(토)
수 요 예 배	오후 8:00	청 년 부 예배	오후 7:00(토)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 인천 서구 가좌동 4-24 Tel) 032-575-1654 · Fax)032-581-3723 · http://www.youngkwang.net

축 성탄과 새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웨신)총회[한국교회표준총회]

총회장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부총회장



이영풍 목사
빛 교회

부총회장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총 무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2013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를 향해 도약하는 웨신총회가 되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이홍규 목사 외 임원 일동 배상

웨신총회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 화 : 02)835-2606-7 팩스 : 02)835-2608 총무: 신언창 목사 010)8602-3009
홈페이지 : http://ws21.onmam.com E-mail:sec21ch@hanmail.net